Meritz Financial Daily

| 2024. 7. 26 (Fri)

meritz 메리츠증권
금융 Analyst 조아해
02. 6454-4870
like.cho@meritz.co.kr

News

KB국민은행, 다주택자 추가 주담대 금지…갈아타기도 제한
서울파이낸스 https://buly.kr/CWsKkIc

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당분간 금지 및 주담대 갈아타기(대환)도 일부 제한

금융권은 은행권 전반으로 대출 제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… 국민은행에서 막힌 대출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면 다른 은행들의 대출관리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

"4%는 옛말, 오늘이 가장 높다"…정기예금에 역대급 자금 몰린다
매일경제 https://buly.kr/HSVYDEZ

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으로 은행권 정기예금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

은행들의 수신액도 넉넉한 상황이라 향후 정기예금 금리의 상승전환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

연체율 악화·도덕적 해이…우려커지는 '채무자보호법'
머니투데이 https://buly.kr/FsGjNuQ

오는 10월 '개인채무자보호법'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의 우려가 높아져

은행권은 연체율이 악화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수 있다고 내다보며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 대응TF(태스크포스)도 만들고 첫 모임을 개최

'DLF 중징계' 취소 소송…함영주, 결국 최종 승소
한국경제 https://buly.kr/3CMAlF8

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(DLF)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(전 하나은행장)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

함 회장의 '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' 혐의에 대해 10개 세부 사유 중 2개만 합당하다고 판단한 2심 판결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

'최후통첩' 날리더니 "보완 검토"…손발 안맞는 PF정리 속도전
서울경제 https://buly.kr/CWsKkWp

금융감독원이 최근 전 금융권에 내렸던 '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(PF) 사업장 정리 지침'에 금융위원회가 제동을 걸어

사흘 전 금감원이 "부실 사업장을 6개월 내 처분하라"고 했지만 시한을 두고 압박하면 구조조정이 더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가 다급히 수습에 나선 것

尹정부, 세 번째 감세 세법개정안… 25년만의 상속세 손질
조선비즈 https://buly.kr/B7YGu5Z

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정비한 데 이어,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질

과세표준 최고구간 세율 50%에 최대주주 보유 주식 20% 할증 평가까지 최고 60%의 세율을 부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체계를 개편

상생금융 약발 끝?… 상생보험 판매 비중 1%대
조선비즈 https://buly.kr/1c7Lw78

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에 '상생금융'을 주문한 보험업계도 상생 성격을 띤 상품을 내놓았지만 지난 1년 동안 보험 판매 건수 중 상생보험 비중은 1%대

출시한 상생보험 상품 수가 적고 경제적 취약 계층의 선호가 적으며 보험설계사에게 돌아가는 판매 수수료가 없다 보니 적극적인 영업이 없었기 때문

하나생명, 하이브리드 조직 축소…보장성 영업 쪼그라드나
보험매일 https://buly.kr/APtEyxe

하나생명이 야심차게 준비해 운영을 시작했던 하이브리드 영업 조직이 지난해 급격히 위축

설계사 영입이 보험업계 전반의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, 정착 매력이 타사 대비 부족했고 단기납 종신보험 외 상품 경쟁력에서 밀린 것으로 풀이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